

남도고시가의 작품과 연구 동향*

김신중**

〈차례〉

1. 머리말
2. 작품 현황
3. 연구 동향
 - 3.1 작품 발굴과 소개
 - 3.2 지역문학적 탐색
4. 맺음말

〈국문초록〉

근래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남도(광주·전남지역)의 고시가에 대한 지역문학적 탐색 성과를 연구사적 입장에서 검토한 것이 이 글이다. 특히 남도고시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조선시대의 시조와 가사문학을 주요 대상으로 삼았다. 논의한 내용은 크게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 남도고시가의 작품 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작품 범주를 남도인이 남도를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 외지인이 남도를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 남도인이 외지를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의 셋으로 나누고, 각 범주에 드는 작품들을 살폈다.

둘째, 남도고시가의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작품의 발굴과 소개가 이루어진 경위를 시기별로 고찰하였다. 이어 지역문학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다시 자료정리적 차원과 지역성 해명 차원으로 구분하여 살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남도고시가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해명이 아직 미흡함을

* 이 논문의 초고는 2011년 11월 26일 '2011 한국시가학회 전국학술대회'에서 「호남고시가의 작품과 연구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구술 발표된 바 있다.

** 전남대학교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는 ‘연구의 편향성’과 ‘지역성 해명을 겨냥한 문제의식의 결여’를 들었다.

핵심어 : 남도, 고시가, 조선시대, 지역문학, 지역성

1. 머리말

근래 지역문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¹⁾ 하지만 고시가문학의 경우 심도 있는 연구의 축적은 아직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지역문학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성 해명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론을 모색하는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지금까지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작품을 정리하고 그 특성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하나로 광주·전남²⁾ 고시가의 경우 소박하게나마 지역성을 의식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바로 그런 점에 유의하여 지금까지 행해진 남도고시가에 대한 지역문학적 탐색의 성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다루고자 하는 주요한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이다. 먼저 지역문학으로서 남도고시가의 범주에 드는 작품을 가늠해 보고, 이어 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작품 발굴과 소개

1) 지역문학이란 개념이 아직은 낯설고, 적절한 용어가 지역문학인가 또는 지방문학인가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여기서는 “지방이란 표현은 서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쓰는 말이어서, 지방문학이란 수도문학이 아닌 변방의 문학이라는 인식이 깃들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역문학이라고 하여야 각각의 지역이 독립적인 관점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김대현,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방한문학』 제21집, 동방한문학회, 2001, 178쪽)를 좇아 지역문학이란 말을 사용한다.

2) 광주·전남을 이하 남도라 칭한다. 이 지역은 호남의 일부로서, 호남고시가의 주요한 작품들이 대부분 이곳에서 산출되었다. 때문에 흔히 호남고시가의 중심 무대로 거론되거나 인식되어 왔다. 따라서 연구 동향을 검토하는 자리에서 남도와 호남이 같은 지역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할 것이다.

및 특별히 지역성을 의식한 연구로 나누어 살필 것이다. 이를 통해 남도 고시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연구를 전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록문학으로서 남도고시가의 중심을 이루는 것은 조선시대의 시조와 가사문학이다. 이밖에 백제의 가사부전가요나 고려속요 및 경기체가에서 약간의 편린을 찾아 볼 수 있으나, 그 양은 매우 미미하다. 따라서 이 글의 기술 역시 시조와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2. 작품 현황

지역문학이란 어떤 특정 지역 작가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성립한 문학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남도인에 의해 제작되었거나, 남도를 배경으로 성립한 고시가가 곧 남도고시가이다. 이렇게 정의한다면 남도고시가의 작품 범주는 다음 셋으로 구분된다.

- (가) 남도인이 남도를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
- (나) 외지인이 남도를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
- (다) 남도인이 외지를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

이 중 남도고시가의 정수를 이루며 작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가)일 것이다. 그렇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나)와 (다)의 경우도 남도의 중요한 지역문학 자산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남도고시가의 작품을 보기로 한다.

남도고시가를 통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할 때 으레 그 첫머리에 놓이는 것이 마한의 농공제의에서 행해진 집단가무이다. 그리고 『고려사』 악지 ‘삼국속악’조에 백제의 노래로 기록된 <무등산>·<방등산>·<지리산> 등이 거론된다. 이밖에 고려속요인 <장생포>와 <동동>·<청산별곡>·<쌍화점>도

남도와의 연고를 두고 그 이름이 오르내리는 작품들이다. 경기체가로는 박성건의 <금성별곡>이 남도의 노래이다. 이것이 시조와 가사문학 이전 남도고시가의 대체적인 모습이다.

이런 소략한 모습과는 달리 조선시대에 들어와 시조와 가사문학이 융성하면서 남도지역에서도 그 창작이 활발해지고, 주목할 만한 작가와 작품들이 배출되었다. 그럼 여기서 광주·전남지역에 연고를 둔 작가와 작품 현황을 보기로 한다. 다음에 제시하는 <표1>이 시조문학이고, <표2>가 가사문학이다.³⁾

<표1> 남도의 시조 작가와 작품

번호	작자명	생몰년	연고	작품
1	최덕지	1384~1455	영암	시조 1수
2	이조원	1433~ ?	광주	연화조 1수, 환향가 1수
3	송 순	1493~1582	담양	면양정단가 등 20수
4	양산보	1503~1557	담양	애일가 1수
5	김인후	1510~1560	장성	자연가 등 3수
6	유희춘	1513~1577	담양	현근가 1수, 감상은가 1수
7	양응정	1519~1582	화순	시조 1수
8	이후백	1520~1578	강진	소상팔경 등 12수
9	김성원	1525~1597	담양	시조 1수
10	임 진	1526~1587	나주	시조 1수
11	기대승	1527~1572	광주	시조 1수
12	김응정	1527~1620	강진	서산일락가 등 8수
13	고경명	1533~1592	광주	시조 3수
14	정 철	1536~1593	담양	훈민가 등 약 80여수
15	백광훈	1537~1582	장흥	시조 1수
16	정경달	1542~1602	장흥	시조 1수
17	임 제	1549~1587	나주	시조 3수
18	곽기수	1549~1616	강진	만흥 3수
19	이덕일	1561~1622	함평	우국가 28수
20	윤 제	1562~1645	함평	심덕성가 5수

3) <표1>과 <표2>는 필자의 「남도고시가 약사」(『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다지리, 2001)에 수록한 자료를 일부 보완하여 다시 만든 것이다.

21	김덕령	1568~1596	광주	춘산곡 1수
22	정충신	1576~1636	광주	시조 3수
23	이진문	광해군 때	함평	경변당가 14수
24	나위소	1582~1666	나주	강호구가 9수
25	윤선도	1587~1671	해남	어부사시사 등 75수
26	윤정우	1603~1690	함평	기우가 9수
27	오이건	1609~1702	강진	시조 3수
28	침 평	1616~1684	나주	왕생가 1수
29	윤이후	1636~1699	해남	시조 2수
30	윤두서	1668~1715	해남	시조 1수
31	민제장	1671~1729	화순	영남발선가 1수, 북관가 1수
32	김 려	1681~ ?	나주	용산가, 귀거래사, 지지가 각 1수
33	박순우	1686~1759	영암	사선정 등 6수
34	안창후	1687~1771	보성	한설당도덕가 24수
35	위백규	1727~1798	장흥	농가 9수
36	남극엽	1736~1804	담양	애경당십이월가 12수
37	유도관	1741~1813	담양	시조 4수
38	김이익	1743~1830	진도	시조 50수
39	김상직	1750~1815	장성	감성은가 1수, 입산가 2수
40	기정진	1798~1879	장성	동몽작가 1수
41	이세보	1832~1895	완도	시조 463수

<표2> 남도의 가사 작가와 작품

번호	작자명	생몰년	연고	작품
1	조 위	1454~1503	순천	만분가
2	이 서	1484~ ?	담양	낙지가
3	송 순	1493~1582	담양	면양정가
4	홍 섭	1504~1585	고흥	원분가[실전]
5	양사준	명종 때	영암	남정가
6	백광홍	1522~1556	장흥	관서별곡
7	정 철	1536~1593	담양	성산별곡, 사미인곡, 속미인곡, 관동별곡
8	침 평	1616~1684	나주	귀산곡, 태평곡, 청학동가
9	박사형	1635~1706	보성	남초가
10	윤이후	1636~1699	해남	일민가
11	노명선	1647~1715	장흥	천풍가

12	위세직	1655~1721	장흥	금당별곡
13	이희징	숙·경종 때	강진	춘면곡
14	정 식	1661~1731	담양	축산별곡
15	박순우	1686~1759	영암	금강별곡
16	안창후	1687~1771	보성	명분설가
17	위백규	1727~1798	장흥	사회가, 권학가
18	남극엽	1736~1804	담양	향음주례가, 충효가
19	박이화	1739~1783	영암	낭호신사, 만고가
20	이방익	정조 때	강진	홍리가
21	유도관	1741~1813	담양	경술가, 사미인곡
22	김이익	1743~1830	진도	금강중용도가
23	윤희관	1745~1823	강진	소거가
24	김상직	1750~1815	장성	사향가, 계자사
25	천형복	?	장성	선생입산후사은가
26	이상계	1758~1822	장흥	인일가, 초당곡
27	남석하	1773~1853	담양	초당춘수곡, 사친곡, 원유가, 백발가
28	채구연	1803~ ?	완도	채환재적가
29	민주현	1808~1882	화순	완산가
30	이중전	1825~1893	장흥	장한가
31	박정기	1846~ ?	해남	박금강금강산유산록
32	정해정	1850~1923	담양	석촌별곡, 민농가
33	미 상	영조27 이후	담양	효자가
34	미 상	영조 때	장흥	임계탄
35	미 상	철종 때	장성	하서도통가

위에 든 작가는 시조 41명, 가사 35명이다. 가사에 3명의 미상 작가가 있으나, 그 연고가 확실하다고 생각되어 말미에 기록하였다. 그 중 송순, 정철, 침굉, 윤희후, 박순우, 안창후, 위백규, 남극엽, 유도관, 김이익, 김상직은 시조와 가사 두 장르에 걸쳐 작품을 남겼다.

앞에서 거론한 세 가지 작품 범주를 놓고 보면, 대부분 남도인이 남도를 배경으로 제작한 (가)의 범주에 든다. 하지만 (나)와 (다)에 속한 경우도 일부 찾아볼 수 있다.

(나) 외지인이 남도를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

- 시조 : 김이익과 이세보의 작품
- 가사 : 조위의 <만분가>, 홍섬의 <원분가>, 양사준의 <남정가>, 이방익의 <홍리가>, 김이익의 <금강중용도가>, 채구연의 <채환재적가>

(다) 남도인이 외지를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

- 시조 : 박순우의 <사선정> 등
- 가사 : 백광홍의 <관서별곡>, 정철의 <관동별곡>, 정식의 <축산별곡>, 박순우의 <금강별곡>, 박정기의 <박금강금강산유산록>

(나)의 외지인 중 양사준은 명종 10년(1555) 을묘왜변이 일자 우도 방어사 김경석을 따라 영암에서 왜군과 싸웠다. 그 때 전승을 기념하여 지은 것이 <남정가>이다. 나머지는 모두 유배객의 몸으로 남도를 찾은 인물들이다. 조위는 연산군 때 순천에서, 홍섬은 중종 때 고흥에서, 이방익은 정조 때 강진에서, 김이익은 순조 때 진도의 금갑도에서, 이세보는 철종 때 완도의 신지도에서, 채구연은 고종 때 역시 완도의 신지도에서 유배생활을 하며 해당 작품들을 지었다.

(다)는 다시 남도인이 관리로서 부임한 임지의 산수를 그린 작품과 순수하게 명승을 유람한 작품으로 나뉜다. 전자로는 백광홍이 명종 때 평안도평사로 <관서별곡>을, 정철이 선조 때 강원도관찰사로 <관동별곡>을, 정식이 영조 때 경상도 용궁현감으로 <축산별곡>을 지었다. 박순우와 박정기는 후자의 경우로, 둘 다 개인적 동기에서 금강산을 유람하고 작품을 남겼다. 박순우의 <금강별곡>은 영조 때, 박정기의 <박금강금강산유산록>은 고종 때 이루어졌다.

그런데 (나)와 (다)의 경우 작자가 외지인이거나, 작품 배경이 남도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남도고시가에 포함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라는 논란이 있다. 특히 (나)보다 지역 관련성이 낮은 (다)의 경우 더욱 그렇다. 하지만 (다)는 단순히 남도 출신 작가가 지었다는 사실 외에도, 기행가사인 이 작품들의 노정이 남도에서 비롯되거나 남도로 마무리되고, 기행 중

의 객창감이 작자의 향토인 남도를 기반으로 성립한다는 점에서 남도고시가의 범주에 속한다고 하겠다. 또 (나)는 외지인에 의한 작품이기는 하나 남도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으며, 그 속에 남도의 지역적 실상이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마땅히 남도고시가로 취급하여야 한다. 결국 (나)와 (다)는 남도의 지역문학이면서, 또 한편으론 그 작자가 속하거나 작품의 배경이 된 해당 지역의 문학이기도 하다.

3. 연구 동향

문학연구에 있어 지역문학을 대상으로 한 지역적 탐색은 일반적 탐색과 어떻게 구분되는가? 어찌 보면 사실 이런 물음 자체가 성립되는가도 의문이다. 모든 문학 작품은 태생적으로 어느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한 지역문학일 수밖에 없고, 그것에 대한 고찰 역시 그 지역과의 관계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쨌든 지역적 탐색이라 하면 지역과의 관련성을 의식적으로 고려한 것이라 할 것이다. 지방문학사 서술에 대한 다음 견해는 그러한 지역적 탐색의 방향이 매우 다양함을 말해 준다.

작품에 등장한 자연배경, 역사적 사건, 사회상이나 생활상, 사고방식이나 정서가 모두 다를 만한 주제이다.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문체 삼기보다 서로 관련되어 있는 양상을 총체적으로 검토하는 편이 더욱 바람직하다. 그 지방에 머물러 사는 작가, 자기 지방을 떠난 작가, 일시 방문자가 된 외지 작가의 작품 가운데 어느 것이라도 특정 주제를 다루는 데 긴요하다고 판단되면 다 다룰 수 있다. 취급 범위는 미리 정할 수 없고, 어떤 주제를 다루는가에 따라 달라진다.⁴⁾

지역문학에 대한 다양한 탐색들이 개별적인 접근에 그치기보다는 총체

4) 조동일, 『지방문학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207쪽.

적으로 검토되었을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질 것임은 물론이다. 또 그런 총체적 검토는 궁극적으로 해당 지역문학의 특색 즉 지역성이 무엇인지 해명하기를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연구를 그런 거시적 목표를 설정하고 수행할 수는 없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지역에 기반을 둔 개별 작가론이나 작품 배경론의 단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 남도고시가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작품 발굴과 소개’ 및 ‘지역문학적 탐색’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3.1 작품 발굴과 소개

앞 장에서 거론한 남도의 시조·가사 작가 중 초기 국문학사 기술에 그 이름이 보이는 것은 송순·정철과 윤선도를 비롯하여 홍섬, 백광홍, 임제, 이덕일, 윤두서 정도이다.⁵⁾ 하지만 이때까지도 송순의 <면앙정가>와 백광홍의 <관서별곡>은 아직 그 원사가 발견되지 않았으며, <관서별곡>은 백광홍의 소작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그 외 대부분의 작가와 작품은 주로 1960년대 이후 일부 학자들의 발굴 및 소개에 힘입어 알려지고 연구되었다. 여기에 먼저 가사문학을 중심으로 그 경위를 정리한다. 시조는 대체로 많은 작품들이 조선 후기의 가집에 수록되어 전하기 때문에 특별히 발굴의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가사처럼 많지 않다.

위에 언급한 작가들에 이어 먼저 발굴 소개된 것은 승려 침평의 가사작품이다. 김봉영이 1959년 『국어국문학』에 <귀산곡>·<태평곡>·<청학동가>를 해제와 더불어 소개하였다.⁶⁾ 이어 1961년에는 정익섭이 이서의 <낙지가>를 발굴하여 역시 『국어국문학』을 통해 논고를 발표하였다. 정익섭은 이후에도 꾸준히 박이화의 <만고가>와 <낭호신사>(1964), 박사형의 <남초가>(1971), 윤희관의 <소거가>(1972), 이중전의 <장한가>(1986)를

5) 조운제의 『한국문학사』(동국문화사, 1949)에 거론된 작가와 작품 참고.

6) 이하 관련 논고에 대한 서지 정보는 이 글의 참고문헌에 일괄 제시한다.

발굴하여 그 작가 및 작품에 대한 천착을 이어갔다.

1963년에는 이가원이 유배가사의 효시로 조위의 <만분가>를 연구하였고, 김성배(1963)는 박순우의 <금강별곡>을 소개하였다. 또 김동욱(1963)은 <남정가>를 처음으로 거론하며 이를 양사준이 아닌 양사언의 작품으로 추정하였으며, 이어 필사본 『잡가』에서 <면양정가>의 우리말 원사를 찾아내었다(1964).

비슷한 시기에 이상보(1963) 역시 『기봉집』에 수록된 <관서별곡>의 원사를 찾아 작자가 백광홍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상보는 계속 새로운 작품을 발굴하고 연구하여 이 분야에 남다른 업적을 남겼다. 추담가사라 일컬어지는 남석하의 <초당춘수곡>·<사친곡>·<원유가>·<백발가>(1977), 김상직의 <사향가>·<계자사> 및 천형복의 <선생입산후사은가>(1979), 정해정의 <석촌별곡>과 <민농가>(1980), 작자 미상의 <하서도통가>(1983), 김이익의 <금강중용도가>와 시조 50수(1986), 남극엽의 <향음주례가>·<충효가> 및 시조 <애경당십이월가> 12수(1987), 유도관의 <경술가>와 <사미인곡>(1989), 안창후의 <명분설가>와 시조 <한설당도덕가> 24수(1990)가 모두 그의 손에 의해 빛을 보았다.

이종출은 1966년 『위문가첩』을 통해 장흥지역의 가사 6편을 찾아내고 일련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노명선의 <천풍가>, 위세직의 <금당별곡>, 위백규의 <자회가>와 <권학가>, 이상계의 <인일가>와 <초당곡>이 그것이다. 위백규의 시조 <농가> 9수도 이때 함께 발견되었다.

1968년에는 구수영이 윤이후의 <일민가>를 『동대신문』(1968. 7. 30)에 소개하였다. 같은 해에 하성래는 민주현 <완산가>의 해제와 전문을 『한국언어문학』에 실었고(1968), 1973년에는 작자가 분명치 않은 <효자가>를 소개하며 그 작자를 정방으로 추정하였다. 민제장의 시조 <영남발선가>와 <북관가>도 그에 의해 처음으로 조명되었다(1972).

나위소의 시조 <강호구가> 9수는 1976년 박준규에 의해 한국언어문학회에서 구술 발표되었다가, 이후 다시 논고를 통해 정리되었다(1989). 김려의 시조(1990)와 이진문의 시조 <경변당가> 14수(1992) 역시 박준규

가 소개하였다.

이세보의 시조 463수는 진동혁이 발굴하여 연구하였으며(1983), 김응정과 오이건의 시조 역시 진동혁이 『해암가곡집』 관련 기록을 발견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1983). 정식의 <축산별곡>도 그에 의해 소개되었다(1994).

이밖에 최강현(1981)은 <홍리가>의 작자가 <표해가>의 작자인 이방익(李邦翼)과는 다른, 정조 때 중추도사로 있다 강진에 유배된 이방익(李邦翊)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김영수(1987)는 채구연의 <채환재적가>를 소개하였다. 김팔남(1995)은 ‘강진의 진사’였던 이희징이 <춘면곡> 작자라는 사실을 이하곤의 『남유록』을 근거로 추정하였다. 박정기의 <박금강 금강산유산록>에 대해서는 조규익(2002)이 처음으로 원생계 금강산기행 가사의 한 이본으로 고찰하였다. 또 임형택(2003)은 영조 때 장흥지역을 덮친 대기근의 참상을 고발한 현실비판가사 <임계탄>을 발굴 소개하였다.

이러한 남도고시가의 작가(또는 작품)들을 발굴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950년 이전 : 송순, 정철, 윤선도, 홍섬, 백광홍, 임제, 이덕일, 윤두서
- 1950년대 : 침핑(1959)
- 1960년대 : 이서(1961), 조위(1963), 박순우(1963), 양사준(1963), <관서별곡>(1963), <면양정가>(1964), 박이화(1964), 노명선·위세직·위백규·이상계(1966), 윤이후(1968), 민주현(1969)
- 1970년대 : 박사형(1971), 윤희관(1972), 민제장(1972), <효자가>(1973), 나위소(1976), 남석하(1977), 김상직·천형복(1979)
- 1980년대 : 정해정(1980), 이방익(1981), <하서도통가>(1983), 이세보(1983), 김응정·오이건(1983), 이중전(1986), 김이익(1986), 채구연(1987), 남극엽(1987), 유도관(1989)
- 1990년대 : 안창후(1990), 김려(1990), 이진문(1992), 정식(1994), 이희징(1995)
- 2000년대 : 박정기(2002), <임계탄>(2003)

위에서 보듯 남도고시가의 작품 발굴 및 소개는 195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이어져왔다. 그 과정에서 몇몇 학자들의 활동이 특히 두드러지는데, 정익섭·이상보·이종출·하성래·박준규·진동혁 등이 그렇다.

그런데 새로운 고시가 자료를 소개한 일련의 연구는 대부분 작가의 생애나 작품의 배경, 작품의 개괄적인 내용이나 형태의 분석, 그리고 국문학적 의의 해명에 중점을 두기 마련이다. 따라서 작가의 생애나 작품의 배경을 거론하는 가운데 흔히 연구자의 지역적 관심이 표명된다.

또 많은 작가들이 발굴 소개된 이후 계속하여 연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저 일시적인 조명을 받는데 그치고 있다. 지속적으로 연구의 대상이 된 경우로는 송순·백광홍·정철·임제·윤선도·위백규·이세보 등을 들 수 있다.⁷⁾ 그 중 송순·백광홍·정철·임제·윤선도는 국문학 연구 초기부터 관심을 받았으며, 특히 정철과 윤선도에게 많은 시선이 집중되었다. 이에 비해 위백규와 이세보는 보다 늦게 알려진 작가들이다. 위백규는 농촌 현실과

7) 특히 이들은 다음과 같은 학술대회를 통해 집중적인 조명을 받기도 하였다.

- 『제1회 고산연구 학술대회』, 고산연구회, 1986. 5. 10.
- 『완도지역 고산 윤선도의 문화유적에 관한 학술발표대회』, 고산연구회, 1989. 7. 8.
- 『고산 윤선도의 문예와 사상(제1회 고산학술제)』, 완도군·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11. 10. 19.
- 『송강 정철의 생애와 문학(제9회 전남고문화심포지움)』, 한국고시가연구회, 1994. 11. 5.
- 『송강문학의 특질과 미학(제6회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회, 2005. 9. 23.
- 『면양정 송순의 생애와 문학(면양정송순연구 전국학술대회)』, 한국고시가학회, 1995. 11. 11.
- 『면양정 송순의 문학과 사상(제7회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회, 2006. 9. 22.
- 『경평군 이세보 시조의 재인식(문화체육부 문화인물 선정기념 학술발표대회)』, 한국시조학회, 1997. 7. 5.
- 『백호 임제의 생애와 문학세계(제1회 나주인물선양 학술세미나)』, 호남대 호남발전연구원·담양대 문화관광센터, 2003. 10. 29.
- 『기봉 백광홍선생 학술발표회』, 기봉백광홍선생 기념사업회·한양대 한국학연구소, 2004. 6. 29.

밀착된 작품을 남긴 향촌사족이라는 점에서, 이세보는 유배 체험을 다양하게 형상화한 작가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3.2 지역문학적 탐색

여기서 살펴보려는 것은 남도고시가에 대한 다양한 접근 중에서도 특별히 남도라는 지역을 의식하고 행해진 연구이다. 그 결과는 크게 다음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다. 하나는 흩어진 지역문학 자료를 한데 모아 정리한 경우이고, 또 하나는 그에 대한 지역성의 해명에 관심을 보인 경우이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는 주로 작품집의 편찬이나 지역의 문학사(또는 문학개설) 서술로 나타난다. 먼저 이에 대해 정리한다.

- ① 손광은 편저, 『전남의 문학』, 전라남도, 1989.
- ② 김석중·백수인 편저, 『장흥의 가사문학』, 장흥군, 1997(2004).
- ③ 박준규·최한선, 『담양의 가사문학』, 담양군, 2001.
- ④ 김신중·조태성·김석태·박세인·국윤주 편저, 『호남의 시조문학』, 심미안, 2006.
- ⑤ 김신중·박영주의, 『담양의 가사기행』, 담양문화원, 2009.

위는 남도고시가를 모은 작품집이다. 이런 작품집의 편찬은 대개 시·군이나 도 단위의 지방자치단체가 향토사를 정리하며 주도하였다. ①이 그 첫 번째 시도로 전남의 고전문학과 현대문학을 망라하여, 각 장르별로 간단한 개설과 함께 주요한 작품을 수록하였다. 또 ②와 ③과 ⑤에서는 장흥과 담양지역의 가사 작품을 정리하였다. 저술에 따라 작품의 주석 또는 현대역 및 배경 지역의 현장감을 살린 해설이 곁들여져 있다. 특히 장흥과 담양의 가사가 작품집으로 엮어진 것은 이 두 지역에서 의미 있는 창작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④에서는 시조 작품들을 한 자리에 모아 해제와 주석을 가하였다.

작품집의 편찬과 더불어 1990년대를 지나며 문학사적 기술도 그 모습을 보인다.

- ⑥ 류연석, 「전남지방의 가사문학」, 『남도문화연구』 제5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4.
- ⑦ 『전라남도지』, 제18권(고전문학편),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5.
- ⑧ 김신중, 「남도고시가약사」,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도서출판 다지리, 2001.
- ⑨ 김성기, 『남도의 시가』, 역락, 2002.

⑥은 고시가 중 특히 가사 장르의 작품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통시적으로 살폈고, ⑧과 ⑨는 가사뿐만 아니라 고시가 전반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⑨는 남도의 향가·고려속요·경기체가·시조·가사·민요·판소리·한시의 제 장르에 대한 개설과 더불어 주요 작품들을 수록하고 해제를 가하였다. 또 ⑦은 『전라남도지』 편찬 과정에서 전남의 고전문학만을 단행본으로 편집한 것이다. 대체로 이런 논저들이 주로 남도고시가의 가맥을 의식한 문학사적 기술을 하고 있으나, 자료의 정리나 해설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다음은 지역성의 해명에 관심을 보인 경우이다. 남도고시가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발언은 조운제에서 비롯된다. 그는 송순을 이현보와 더불어 “可히 참된 自然美의 發見者요, 또 江湖歌道를 唱導한 이”라고 하였다. 이어 정철과 윤선도를 논하는 자리에서도 정철은 “關東別曲, 星山別曲 등을 지어 自然의 美를 謳歌하여 文學에 큰 貢獻을 하였고”, 윤선도의 시와 악은 “決코 詩와 樂을 爲한 그것이 아니고 天地 自然美의 律動으로서의 詩요 또 樂이었다”고 하였다.⁸⁾ 즉 남도고시가의 특성으로 자연과의 특별한 관계를 지목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이후의 연구자들에 의해 계승되고 보다 심화되는 양상

8) 조운제, 『한국문학사』(탐구당, 1987), 164·217쪽.

을 보인다. 그 중 정익섭은 호남의 시가 활동을 가단 중심으로 정리한 업적을 남겼다. 그는 호남지방의 가사에 대한 일련의 논고(1963, 1964, 1966)를 통해 <관서별곡>·침괘가사·<낙지가>·송강가사·<면양정가>·구계가사·<금강별곡>·<만분가>·<남정가>를 차례로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양정가단과 성산가단을 중심으로 한 호남가단의 성격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1975, 1989). 특히 가단 형성의 중심이 된 누정에 주목하여, 면양정·소쇄원·환벽당·서하당·식영정을 무대로 형성된 두 가단의 출입 인사와 인맥 관계 및 관련 작품들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담양의 무등산권이 호남시가의 중심지로 부각되었다.

또 박준규(1998)는 국문시가 위주의 가단 개념을 한시까지 포함한 시단으로 확대시키는 한편, 논의의 범위도 호남 전역으로 확장하여 호남누정시단의 형성과 주요 인물들의 활동상을 폭넓게 고찰하였다. 그 과정에서 박상, 송순, 김인후, 기대승, 정철, 윤선도가 집중적으로 거론되었다. 이밖에도 유사한 논의들이 상당수 이루어진 바, 주로 16세기의 불안했던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지역 사립의 형성 및 중앙 정계로의 진출과 좌절 또는 퇴휴가 문학적 배경으로 취급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호남시단의 시학적 기반으로 방외적 기질과 낭만적 정서가 주목되기도 하였다(최한선:1994).

한편 1986년 ‘고산연구회’의 창립은 해남과 보길도를 배경으로 한 윤선도 연구의 새로운 전기가 되었다. 고산연구회는 창립 이후 수년간 학술 행사와 유적 답사를 주도하며, 학술지 『고산연구』를 제4호(1990)까지 발행하였다. 이를 통해 부용동과 금쇄동 외 수정동원림의 실체가 드러났으며, 이러한 자연 원림을 비롯한 시가 유적 및 고산시조의 언어적 특성과 문학적 성격에 대한 집중적인 고찰이 이루어졌다. 최근(2011. 10. 19)에도 완도군과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주최로 ‘고산학술제’가 열려 17세기 정치사의 동향 및 호남사립의 계보와 관련 윤선도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문학세계에 대한 다면적 논의가 있었다.

담양과 장흥에서 가사의 창작이 보다 활발하였음은 앞에서 이미 언급

한 바 있다. 그 담양가사에 대해 김학성(2010)은 탁월한 형상화 기법이나 미학적 짜임새, 문체의 수준 등을 통해 미학적 성취를 논하며, 담양 사대부들의 유가로서의 겸선 지향 태도가 사회 지향 중심의 교훈가사와 자연 지향 중심의 강호가사를 집중적으로 산생시켰다고 하였다. 작품의 주요 성향이 지역 사대부들의 태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비해 장흥가사는 조선시대의 보편적 주제인 강호한정과 연주충군이 거의 보이지 않는 대신 기행가사·교훈가사·현실비판가사가 주류를 이룬다. 그 요인으로 조선 후기 이 지역 향촌사족들의 의식세계 및 당시의 농민현실이 주목되었다(김신중:2011). 역시 작자층의 성격 및 작품 성향과의 관계에 대한 해명이다.

호남시가의 전반적인 기본 특질에 대해서는 조동일이 첫째 문학이 음악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시가가 발달한 것, 둘째 여성의 정서나 여성 서술자의 목소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점, 셋째 민중의 생활을 민중의 언어로 표출하는 데 열의를 보이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 셋이 하나로 합쳐진 예로 판소리를 들었다(1997). 나아가 여성의 노래를 통해 민중의 수난을 함께 나타내고자 해서 남성 시인들이 여성화자의 작품을 창작했다고 하며, 이를 ‘남성시가의 여성화자’라는 말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이렇듯 남녀의 구분을 넘어서는 노래가 두드러진 의의를 갖는 호남문학에 비해 영남문학은 상하의 차등을 뒤집어엮는 이야기 형태의 산문 즉 인물전설이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2003).

또 근래에는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문학을 문화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여수의 노래인 <동동>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자는 제안(김준옥:2006)이 그것이다. 또 <면양정삼십영> 등 풀이적 성향의 서술시 전통이 호남의 누정시단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이러한 서술시의 세계를 재현하거나 그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자는 것(최한선:2006)도 같은 경우이다.

이런 논의들을 거치며 남도고시가의 지역적 특성으로 자연미의 추구, 누정문학의 발달, 방외적 기질과 낭만적 정서, 높은 음악성, 여성적인 정

조, 민중의 생활과 언어에 대한 관심 등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남도고시가의 지역적 특성이 아직 만족할 만하게 해명되지 않는 듯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연구자들이 지역문학이라는 개념을 적극적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남아있는 고시가 유산에 대한 검토가 미진하다는 점도 그 한 요인이다.

4. 맺음말

지금까지 지역문학으로서 남도고시가의 작품과 연구 동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남도고시가의 작품 범주를 셋으로 나누어 시조와 가사를 중심으로 현전 양상을 살폈으며, 이어 그에 대한 연구 동향을 정리하였다. 그 결과 이미 주목할 만한 많은 논의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 한편 지역적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해명이 아직은 미흡함도 지적하였다. 이제 여기서 그 요인과 더불어 남은 문제를 따진다면 다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연구의 편향성이다. 지금까지 남도고시가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조선 중기와 일부 유명 작가에 집중되었다. 그것은 곧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이 지역 출신 작가와 중앙 정치 무대와의 관련 양상을 밝히는 데 치중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조선 후기 향촌사회를 배경으로 한 작품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탐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 외지인이 남도를 배경으로 제작하였거나 남도인이 외지를 배경으로 제작한 작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점에서 남도의 해안 도서지역을 배경으로 제작된 일련의 유배시가에 대한 천착도 남은 과제이다.

둘째, 지역성 해명을 겨냥한 문제의식의 결여이다. 이는 지역문학이란 개념이 근래에 부상한 것과 관련이 있다. 앞으로 적극적인 지역성의 해명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방법론이 필요하며, 그것은 시대와 사회문화적 배경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사 연구에서 거둔

성과와 연계하여 조선 후기 향촌사족층 시가의 실상을 밝히는 작업이 필요하다. 또 다른 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 그 특성을 도출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넓게는 장르적 차원의 문제에서부터 좁게는 특정 작가나 작품의 교섭이나 형성에 이르기까지 비교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이 글은 논의의 대상을 고시가 특히 시조와 가사문학에 한정시켰다. 그렇지만 남도고시가 성격의 온전한 해명을 위해서는 인접 장르인 한시 및 민요 등과의 관계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 점도 보완을 요하는 문제이다.

참고문헌

『고산연구』 제1·2·3·4집, 고산연구회, 1987·1988·1989·1990.

『고산 윤선도의 문예와 사상(제1회 고산학술제 발표요지집』, 완도군·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11.10.19.

구수영, 「윤이후의 <일민가> 고찰」, 『송강·고산문학론』, 이우출판사, 1979.

김대현, 「지역문학 연구에 대한 몇 가지 문제」, 『동방한문학』 제21집, 동방한문학회, 2001.

김동욱, 「양사언의 「남정가」」, 『인문과학』 제9집, 연세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63.

———, 「면양정가」, 『문학춘추』 제3호, 문학춘추사, 1964.

김봉영, 「미발표의 『침핑가사』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제20호, 국어

- 국문학회, 1959.
- 김석중·백수인 편저, 『장흥의 가사문학』, 장흥군, 2004(증보개정판).
- 김석회, 『존재 위백규 문학 연구』, 이회문화사, 1995.
- 김성기, 「장흥지역의 가사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35집, 한국언어문학회, 1995.
- _____, 『남도의 시가』, 역락, 2002.
- 김성배, 「명촌 박순우의 금강별곡」, 『무애양주동박사화탄기념논문집』, 동국대학교, 1963.
- 김신중, 「남도고시가약사」, 『은둔의 노래 실존의 미학』, 도서출판 다지리, 2001.
- 김신중·조태성·김석태·박세인·국윤주 편저, 『호남의 시조문학』, 심미안, 2006.
- 김신중·박영주외, 『담양의 가사기행』, 담양문화원, 2009.
- 김신중, 「장흥가사의 특성과 의의」, 『고시가연구』 제27집, 한국고시가학회, 2011.
- 김영수, 「채환재적가」, 『한국학보』 제46집, 일지사, 1987.
- 김준옥, 「동동은 여수의 노래」, 『(사)여수지역사회연구소 창립11주년기념학술제 발표요지집』, 한국고시가학회, 2006.6.8.
- 김창원, 「지역문학 연구의 방법과 방향」, 『우리어문연구』 제29집, 우리어문학회, 2007.
- 김팔남, 「〈춘면곡〉 고찰」, 『어문연구』 제26집, 어문연구회, 1995.
- 김학성, 「담양가사의 위상과 미학」, 『제11회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집』,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회, 2010.10.22.
- 류연석, 「전남지방의 가사문학」, 『남도문화연구』 제5집,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소, 1994.
- 박준규, 「송암의 수운정제영과 강호구가」, 『어문논총』 제10·11호, 전남대학교 국어국문학연구회, 1989.
- _____, 「남강 김려와 그의 시가」, 『학산조종업박사화갑기념논총』, 1990.

- _____, 「경변당가 고」, 『모산학보』 제3집, 모산학술연구소, 1992.
- _____, 『호남시단의 연구』,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8.
- 박준규·최한선, 『담양의 가사문학』, 담양군, 2001.
- 손광은 편저, 『전남의 문학』, 전라남도, 1989.
- 이가원, 「〈만분가〉 연구」, 『동방학지』 제6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63.
- 이상보, 「관서별곡연구」, 『국어국문학』 제26호, 국어국문학회, 1963.
- _____, 「시내 위 버들잎은」, 『문학사상』 통권53호, 문학사상사, 1977.
- _____, 「김상직의 시가」, 『현대문학』 통권 295호, 현대문학사, 1979.
- _____, 「정해정의 석촌가사 연구」, 『논문집』 제12집, 명지대학교, 1980.
- _____, 「하서 김인후의 국문학 연구」, 『어문학논총』 제3집, 국민대학교, 1983.
- _____, 「유와 김이익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총』 제6집, 국민대학교, 1986.
- _____, 「애경 남극엽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총』 제7집, 국민대학교, 1987.
- _____, 「곤과 유도관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총』 제8집, 국민대학교, 1989.
- _____, 「한설당 안창후의 시가 연구」, 『어문학논총』 제9집, 국민대학교, 1990.
- 이종출, 「지지재 이상계의 가사고」, 『국어국문학』 제33호, 국어국문학회, 1966.
- 임형택, 「신발굴 자료를 통해본 가사의 재인식」, 『민족문학사연구』 제22호, 민족문학사학회, 2003.
- 『전라남도지』 제18권(고전문학편), 전라남도지편찬위원회, 1995.
- 정익섭, 「이서의 〈낙지가〉 고찰」, 『국어국문학』 제24호, 국어국문학회, 1961.

- _____, 「호남지방의 가사고 (一)·(二)·(三)」, 『전남대학교 논문집』 제9·10·12집, 1963·1964·1966.
- _____, 「구계 박이화의 가사고」, 『한국언어문학』 제2호, 한국언어문학회, 1964.
- _____, 「청광자 박사형의 <남초가> 고」, 『지현영선생회갑논문집』, 1971.
- _____, 「죽록 윤희관의 <소거가> 고」, 『낙은강전섭선생화갑기념논총』, 창학사, 1972.
- _____, 『호남가단연구』, 진명문화사, 1975.
- _____, 『개고 호남가단연구』, (주)민문고, 1989(개고판).
- _____, 「우곡의 <장한가>고」, 『한국언어문학』 제24집, 한국언어문학회, 1986.
- 조규익, 「금강산 기행가사의 존재양상과 의미」, 『한국시가연구』 제12집, 한국시가학회, 2002.
- 조동일, 「호남시가의 문학사적 의의」, 『제3회 호남문학연구 학술세미나 발표요지집』, 호남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1997.7.2.
 , 『지방문학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 조운제, 『한국문학사』, 동국문화사, 1949.
 , 『한국문학사』, 탐구당, 1987(황조신판).
- 진동혁, 『이세보시조연구』, 집문당, 1983.
- _____, 「김응정의 시조 연구」, 『국어국문학』 제90호, 국어국문학회, 1983.
- _____, 「정식의 <축산별곡> 연구」, 『국문학논집』 제14집,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4.
- 최강현, 「<홍리가>의 지은이에 대하여」, 『한국언어문학』 제20집, 한국언어문학회, 1981.
- 최한선, 「나주문학의 갈래적 접근」, 『1994 향토문화 심포지움 발표요지집』, 동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12.10.
- _____, 「지방, 문학, 자원화를 위해」, 『제7회 가사문학 전국학술대회

발표요지집』, 한국가사문학학술진흥회, 2006.9.22.

하성래, 「완산가」, 『한국언어문학』 제5집, 한국언어문학회, 1968.

_____, 「민제장의 시조 2수」, 『조대학보』 제6호, 조선대학교 총학생회, 1972.

_____, 「정방의 <효자가> 고」, 『한국언어문학』 제10집, 한국언어문학회, 1973.

투고일 : 2012년 1월 9일, 심사 : 2012년 1월 16일~ 2월 13일, 게재확정 : 2월 14일

<Abstract>

Works of Namdo's Old Siga and Research Trends

Kim, Shin-chung

Regional literature was recently spotlighted. In connection to this point, I dealt with the result of study about old Siga(詩歌) of Namdo(南道) which refers to the area of Gwangju and Jeollanam-do. In particular I mainly covered Sijo(時調) and Gasa(歌辭) literature in the Joseon Dynasty period that centralized Namdo's old Siga. The main ideas were as follows.

First, I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Namdo's old Siga. In order to do this, I categorized the works of Namdo's old Siga into three groups. The three categories were as follows: the ones written about Namdo by Namdo's regional people, the ones written based on Namdo by people from other regions and the ones written about other regions except Namdo by Namdo's regional people.

Second, I examined the research trends about Namdo's old Siga. I gave careful consideration to the details of how the works are excavated and introduced with respect to the period. Then I divided the research done in the light of regional literature into two different groups such as the one studied in terms of organizing the research material and the one conducted with regard to explaining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upon this, I pointed out that there was not enough explanation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of Namdo's old Siga for two reasons. The earlier studies are biased and there was a lack of critical mind to account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Key words : Namdo, Old Siga, The Joseon Dynasty period, Regional Literature, Regional Characteristics

